



선목 혜자 스님이 108산사 기념공원에 들어설 기념비를 가리키고 있다. 스님은 순례를 통해 모두가 더불어 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스님은 더욱 많은 이들이 새로운 서원을 세울 수 있도록 53기도도량 순례를 진행할 예정이다.

108산사 순례 이어 53기도도량 찾아나서는 혜자 스님

“시작할 때는 겁있던 회원들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분들의 남다른 신심과 원력이 아니었으면 9년간의 순례를 마치지 못했을 겁니다.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108산사순례기도회의 대회를 앞두고 혜자 스님은 그 공을 오롯이 기도회 회원들에게 돌렸다. 스님은 “무사히 사고 없이 회향할 수 있어 더없이 좋다”며 “순례 때마다 일상광명의 무지개가 뜨듯, 모두가 하나의 마음으로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혜자 스님이 이끄는 108산사 순례는 전국 각지에서 9년 간 월 평균 5000여 명의 불자들이 참가했다.

혜자 스님은 “회원 모두가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한 보현행자”라고 했다.

스님은 “80세의 한 노보살님의 경우 순례를 다니다 다리가 아파 버스를 탑수 없게 되자 아들이 직접 차를 몰며 어머니를 태우고 6년간 순례에 동참했다. 지금껏 한 차례도 빠지지 않은 분들을 비롯해 모두 감사하다”고 말했다.

법문사 치아사리 친견서 발원해

108산사순례는 처음 사찰 답사에 진행됐다. “2006년 부처님의 치아사리가 모셔진 중국 시

안(西安) 법문사에 참배 갔다가 불현듯 ‘가보지 않은 사찰을 말하는 것은 생령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님은 108산사순례를 발원하고 첫 순례로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통도사 적멸보궁으로 떠났다. 상서로운 일이 이어졌다.

“보궁 앞에 서니 무지개가 뜬 것 아니겠습니까. 일심광명에 모두가 환희심을 느꼈습니다.”

이후 108산사 순례에는 70회가 넘게 무지개가 떴다. 무지개가 뜰 때마다 스님과 회원들의 환희심이 높아져 갔다. 인도 쿠시나गर에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얻어 백담사에 기증할 때도 무지개가 떴으며, 평화의 불을 이룬해 입진각서 통일기원법회를 열 때도 무지개가 떴다. 부처님의 가피일까. 대장정임에도 순례객이 첫 순례에서만도 2000명을 훌쩍 넘겼고 점점 증가해 5000여 명에 이르렀다. 순례도 사찰 답사에서 농산물지켜래를 비롯해 군장병 위문과 다문 화가정 돕기 등 다양화됐다.

스님에게도 많은 별명과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따라 붙었다. 늘 온화한 미소로 회원들에게 행복을 전해줘 ‘포대화상’으로 불리는가 하면 ‘무지개 스님’으로도 불렸다. 또 ‘농촌사랑 홍보대사’로도 불린다.

생명·평화 지키는데도 앞장서

스님은 이제 ‘평화의 전령사’라고도 불린다. 108산사 순례기도회의 순례를 진행하는 동안 혜자 스님은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에서 채화해온 ‘평화의 불’도 이룬해 왔다. 바로 한반도에 평화의 기를 길기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평화의 불’은 네팔의 가넨루라비터 왕세자가 히말라야 산기슭에서 3000여년 동안 자연적으로 타고 있는 ‘꺼지지 않는 불’을 채화한 것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져온 불씨를 합쳐 룸비니 평화공원 제단에 영구전환된 불이다.

“이 불을 가지고 천장기차와 비행기 등을 갈아타며 수많은 난관을 헤치고 한국으로 들어왔죠.”

스님은 2007년부터 전국 산사에 평화의불을 분등(分燈)해 주고 있다.

“입진각에서 통일기원법회를 할 때였어요. 법회를 위해 출발하기 전 입진각에 비가 쏟아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불을 갖고 도착하니 거짓말처럼 화창해지더군요. 그리고 나서 큰 무지개가 떴는데 동그란 일심광명 무지개와 달리 일자로 쭉 뻗은 모양이었습니다. ‘아, 통일로 하나가 되라는 부처님의 가피구나’ 했습니다.”

실천하는 불자가 돼야

108산사순례기도회는 단순한 사찰 순례를 넘어

“一心光明으로 하나된 마음 순례의 참공덕”

도승 교류와 사회기여에도 앞장서고 있다. 직거래 장터 개설을 비롯한 많은 활동은 스님의 상상 정신이 드러난 부분이기도 했다.

스님은 “그 동안 불교계에서는 많은 산사 성지순례를 다녀왔지만 정작 사하촌(寺下村)이나 우리들의 마음의 고향인 농어촌에는 많은 도움이 못됐다”며 “부처님의 육바라미 실천을 통해 대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불교의 정체성을 세워나간다는 원력으로 시작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러한 활동이 곧 수행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부처님께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행의 일환으로 최선을 다한 이타행(利他行)을 권하셨습니다. 불자라면 자비(慈悲), 나눔, 인욕(忍辱)과 같은 개인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 없이 수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스님은 “108산사순례 기도회의 궁극적인 목표도 불법홍포와 수행, 나눔 그리고 행복한 사회 건설에 있다”며 “보시는 현대적으로 나눔 또는 봉사라고 말할 수 있으며 대승보살행은 불교의 실천적 측면과 교리적 측면에서도 보시와 상봉을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스님은 “아무리 훌륭한 이상과 원력이 있다 해도 그에 부응하는 노력이 없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내가 배우고 얻은 것을 중생 수속으로 되돌릴

때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우리 불자들은 중생들에게 사랑과 봉사하는 회향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2016년 1월부터 ‘53기도도량 순례’ 진행

스님은 2차 순례도 준비하고 있다. 회향에 대해 아쉬워하는 신도들이 많기 때문이다. 2차 순례는 2016년 1월부터 ‘선목혜자 스님과 믿음으로 찾아가는 53기도도량’로 진행된다. 53선지식을 의미하는 53사찰을 찾는 순례다.

이와 함께 108산사 순례를 하며 가져온 성토(聖土)를 봉안해 성토단을 만들고, 108산사 기념비와 그동안 순례에 동참한 회원의 명부를 비문으로 게시는 불사도 전개하고 있다.

스님은 “108산사 순례를 하며 각 사찰의 흙을 조금씩 가지고 왔다. 108산사의 정기가 담긴 이 흙을 함께 봉안해 기도하면 108산사에 간 것과 같은 감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10월 15일 신계사 남북합동법회에도 참석해 북측과 108산사 순례를 통한 평화의불 분등을 조율했다.

“이번 순례에는 평양의 광범사, 묘향산 보현사 등 북한측의 사찰도 포함시켜 평화의 불을 평양에도 밝히고 싶습니다. 53산사 순례는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희망찬 시간이 될 것입니다.” 노덕현 기자

개근자들에게 듣다 108산사 순례 하며 오히려 힘을 얻었어요.

“몸이 아파도 완주 한 것 감사할 뿐”

박유란(80) 보살



허리를 다쳤는데도 신기하게 108산사 순례를 갈 때면 아프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절절 때면서도 순례를 가는 날이 오면 가게 되더군요. 그래서 108산사 순례에 모두 참여한 것에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이가 들며 하루라도 젊은 나이에 사찰을 다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이 이런 마음을 알고 끌어 주신 것은 아니런지요. 2차 순례에서도 저처럼 나이가 있더라도 동참해 인생의 서원을 세우길 바랍니다.

“욕심 버리는 참회의 마음 생겨”

대지성 백말순(65) 보살



108산사순례를 하며 참회의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많은 욕심을 갖고 살았구나 하며 남은 여생을 겸허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회향을 앞두고 인도순례를 갔을 때였어요. 부처님 8대 성지를 순례한 것도 좋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하려는 아이들의 가련한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립이 된 선혜학교는 저에게 큰 공덕을 쌓게한 기회였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심시일만 힘을 모아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정말 보람된 순간이었어요.

“부부 간 추억도 많이 쌓았죠”

법륜행 임전옥(57) 보살



처음 도선사에서 철야기도를 발원하며 동참하게 됐습니다. 한반도 빠지지 않고 모두 가보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청평사였습니다. 바로 남편이 동행했기 때문이었죠. 저희 남편은 회원인데 회사일로 휴가 때만 동참했어요. 오랜만에 함께 가게 되었는데 비가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당시에는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 남편과 저의 추억도 됩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법주사에서는 부부 육법공양도 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108산사 순례를 하며 부부사이도 좋아졌어요.

“108산사 순례하며 딸도 한명 얻어”

공덕식 김남수(54) 보살



울산에서 처음에 불교계 신문을 보고 동참하게 됐습니다. 도선사 석불 앞에서 108배를 하고 남편과 함께 도시에서 찌든 마음을 힐링 시킨다는 마음에서 결망 메고 다녀 보자고 했죠. 108차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지역에서 함께 해준 도반들과 한결 같았던 남편의 힘이 큼니다. 저희 부부는 108산사 순례를 하며 딸을 한명 얻었습니다. 바로 다문화가정인 딸을 통해입니다. 수시로 연락을 하며 오히려 아이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행복합니다.

불조정맥 제77조 건강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73번째 저서 출간!!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30권 드디어 완간!!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조사에 이르기까지 선문의 전 공안을 총망라한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전30권이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역저에 의해 15년간의 대장정 끝에 드디어 완간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하다!!

1칙 도솔래의로부터 1,463칙 노파암자소각 공안에 이르기까지 각 칙마다 명안종사의 눈으로 꿰뚫은 번역에 살활자재한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으니 공안의 참 뜻을 가리키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공안의 교과서>라 할 것입니다.

* 각권 15,000원 / 전권 구입시 15% 할인됩니다.
031-534-3373 / 010-4520-7963

<도서출판 바로보인>이 <도서출판 문젠>으로 개명되었습니다.

實戰四柱 강좌 안내

運命을 개척하는 實戰四柱
“나도 성공할 수 있다. 운명을 개척하자!”

각고의 노력으로 드디어 實戰四柱 종합판을 출판하였습니다. 스님을 비롯하여 법사님 등 두구라도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파벌과 부귀영화는 나 자신의 행동여하에 따라서 발생합니다. 이 내용을 습득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며 장수하시고 무량공덕 쌓으시길 기원합니다.

송암 김서경

● 제목 : 實戰四柱 강좌
● 개강 : 2015년 10월 2일(금요일)
● 강의일시 : 매주 월~화, 목~금 (10-12시, 15시-17시, 19시-21시) 하루 2시간 강의
● 강의과정 : 1년 과정 + 육효, 생명학 4개월
● 강의장소 : 명리학연구원 강의실
● 강의교재 : 實戰四柱 (교재비 무료)
● 수강료 : 월 20만원

명리학(命理學) 연구원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73-1 농협건물 4층 401호
전화 010-3341-4867
원장 송암 김서경

實戰四柱 책 판매안내
(수강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별도 판매합니다)

이 실천사주책은 1,030페이지로 사주팔자가 구백육십개이며 용신과 대운과 세운, 칠행, 성격, 팔자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이 책만 배우면 어떠한 사주라도 감정을 줄 수 있습니다. 명리학은 1년만 배우면 타인을 감정을 줄 수 있으며 육효도 필히 배워야 합니다. 사주와 대운은 큰 틀이며 매월의 운세와 승진, 합격, 재물, 매매, 송사, 문서, 생과 사, 택일, 일진, 모든 길흉사는 육효로 감정합니다. 육효는 4개월만 배우면 감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 | 85,000원 (입금 확인 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2012년 10월 3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108산사순례기도회 6주년 기념법회 모습. 당시에도 예고됐던 비를 대신해 일곱 색깔 무지개가 하늘에 걸렸다. 선목 혜자 스님과 기도회 회원들의 지극한 신심 때문이 아니었을까.



2010년 3월 향일암에서 하늘에 걸린 무지개와 혜자 스님의 모습



2011년 2월 네팔 룸비니에서 평화의불을 재화했다.



순례 때마다 기도회는 군장병들에게 초코파이를 전달했다.

가는 곳마다 자비훈풍... 신행문화 새바람

108산사순례기도회 대장정의 발자취

'선목 혜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 (이하 108산사순례기도회)는 한국불교의 신행문화에 새로운 자평을 얻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08산사순례기도회가 10년간 걸어온 길은 한국 불교의 새로운 신행문화를 선도했을 뿐만 아니라 불교를 중심으로 한 동농공동체 형성과 지역사회 기여, 소외계층 돌봄 등의 활동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이 시대에 맞게 실천했다고 할 수 있다.

혜자 스님은 부처님이 중생구제를 위해 떠난 마음과 같이 108산사순례기도회를 이끌었다고 전한다. 5000여 회원들이 매달 108산사를 찾아 108불공을 올리고 108배를 하며 108번뇌를 소멸하고, 108자비나눔선행공덕을 실천해 108염주를 만들어 간 데에는 매회 빠지지 않고 직접 염주를 꿰며 기도회를 이끈 혜자 스님의 원력이 있었다.

이런 원력 하에 이뤄낸 일은 실로 엄청난데, 108산사순례기도회에 동참한 인원은 108차까지 매회 5000여명씩 총 54만명을 상회한다. 이처럼 많은 인원이 매달 모이는 것은 불교사적으로도 유례없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동원된 차량도 1만 1664대에 순례

거리는 817만 3460km에 달한다. 지구를 204바퀴 돌고 달 왕복을 11번 할 수 있다. 공양미로 올려진 쌀도 3000가마가 넘는다. 108산사순례기도회가 찾은 사찰은 대부분이 창건 이래 가장 많은 불자들이 운집하는 기록을 남겼다.

특히 108산사 순례기도회는 회원들의 신심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108산사마다 염불과 기도를 하는 한편, 108참회를 통해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했다. 많은 회원불자들이 순례에 동참하고 각 가정으로 돌아와 가족에게 이러한 마음을 다시 회향했고, 다시 가족 차원에서 동참하는 가정이 늘어났다. 동참불자들에게는 낙관과 해당사찰 이름이 새겨진 염주알을 보시하는 등 신심을 배가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신행활동 뿐만 아니라 108산사순례기도회는 동농공동체를 일구는 활동도 펼쳤다. FTA 타결로 인해 농촌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농어촌 직거래장터 및 농촌사랑방사단을 발족했다. 직거래를 통해 거래된 금액만 30여 억원에 달한다.

또한 군장병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410

만개가 넘는 초코파이 보시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 환경사랑 실천운동, 108효행상(122명 시상), 다문화 가정 108인연맺기(207가족), 소외계층 108장학금(223명 전달) 등 자비나눔에도 앞장서 불교계의 자비나눔 실천에 대한 관심도 고조시켰다.

선목 혜자 스님의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해 108산사 순례를 하는 불교계 단체가 50여 곳에 달한다.

**순례거리 817만 3460km, 지구 204바퀴
동참 총 54만명, 불교사서도 유례없어
농어촌 사랑, 자비나눔 실천도 전개**

이 중 108산사순례기도회가 주목받는 것은 농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담아냈기 때문이다. 순례의 대표적 행사가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와 다문화 여성농업인 인연맺기다.

2006년 11월 합천 해인사에서 2차 순례 이후 회원 신도가 농촌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구매할 시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것이 시초가 됐다. 선목 혜자 스님도 농촌을 지척에 두고 있는데 지역에서 생산한 무공해 정정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록 장소를 마련해 주면 되겠다고 판단했다.

농협중앙회와의 협력을 통해 자리를 마련하니 신도들의 동참이 줄을 이었다. 3일간 5000여명이 1만 원씩만 구매해도 농가소득이 5000만원이나 된다. 이후 혜자 스님은 '농촌사랑 홍보대사'로 위촉돼 지속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108산사순례 기간 동안 열린 직거래 장터일 수만도 334일로 거래대금은 30여 억원에 달한다.

혜자 스님은 또 하나의 의미있는 시도를 했다. 다문화 여성농업인과 순례회원 간 '인연 맺기'가 그것이다. 다문화 시대를 맞아 농촌에 수많은 이민여성이 거주하고 2세가 성장할 텐데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스님의 생각이었다. 인연맺기 행사는 2008년 2월 충남 공주 마곡사에서 네팔 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당초 매일 2명씩 농촌 다문화 가정과 108산사순례회 가정을 연결해 108결연을 하고 했지만 동참인원이 늘어 205결연까지 진행됐다.

또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소외계층을 보듬는 일도 진행했다. 또 사찰 인근에 조손가정을 비롯해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한 선목108장학금은 매일 지역 청소년 2명을 선정해 혜자 스님이 54만원씩 108만원을 전달했다. 지금까지 총 223명이 수혜를 받았다.

약사여래 108보시금은 혜자스님이 고성 육천사 순례 당시 '대상포진'으로 고생한 후 '내 이웃이 겪는 병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하겠다'는 발원을 하면서 시작됐으며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매월 108만원의 약값과 병원비를 지원했다. 총 59명이 혜택을 받았다. 선목 108효행상은 효행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제정해 효자효부 123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여기에는 아버지에게 장기를 이식한 사연 등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군장병 사랑 실천도 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다. 2007년 논산 관측사에서 6차 순례 시 군장병을 초청해 순례행사를 진행한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초코파이를 받기 위해 군장병들이 순식간에 몰리며 상다리가 부러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으로 군장병들의 어려움을 체감한 신도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초코파이를 준비해오기 시작했다. 전체 순례기간동안 전달된 초코파이는 415만개로 일렬로 늘어뜨리면 4150km를 덮는다.

108산사순례기도회를 총괄한 이혜남 사무국장은 "108산사순례기도회 활동과 함께 21세기 새로운 신행운동이 확산된 것은 한국불교를 위해 고무적인 일"이라며 "동참한 모든 불자들의 가정에도 108산사의 가피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108산사순례기도회가 걸어온 길

- 2006년
 - 9월 108산사순례기도회 발대식 및 서울 도선사서 입재식
 - 11월 순천 송광사에서 첫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 2007년
 - 1월 우리농촌살리기 선포식 및 희망의발대식
 - 2월 제1회 신행수기 시상식 개최
 - 2월 논산 관측사에서 첫 군장병사랑 초코파이 보시 시작
 - 7월 신행단체 최초 전세염차로 안동 봉정사 순례
- 2008년
 - 2월 공주 마곡사에서 첫 다문화가정 108인연맺기 시작
 - 2월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동산에서 세계평화기원대법회
 - 5월 대구 동화사에서 북한어린이 위한 자비 우수 나누기 운동 전개
 - 10월 108효행상 시상
 - 12월 동국대 일산병원 환자 쾌유 기원법회
- 2009년
 - 3월 인천항에서 북한어린이 돕기 우수 선적
 - 4월 저소득가정에 108약사여래 보시금, 108선목 장학금 전달

- 6월 심중대계 수계선암법회 개최
- 12월 신행전법순례집 발간 봉정사
- 12월 서울역에서 종교초월 자선법회와 함께 불우이웃돕기
- 2010년
 - 1월 지진 피해 아이티 돕기 성금 전달
 - 4월 동국대 중앙당에서 '순례' 주제 국제학술대회
 - 12월 성탄절 맞이 서울 평화를 만드는 교회 방문
- 2011년
 - 3월 양양 낙산사에서 일본 지진해일 희생영가 극락왕생 기원법회

- 8월 청양 장곡사에서 북평도 품기 공양미 300석 모으기 운동 전개
- 12월 서울 인사동에서 연말연시 자비나눔 탁발
- 2012년
 - 2월 네팔 룸비니에서 불사리봉안 탄생불 제막
 - 5월 108산사 총주 선목원 수월관을 개음불사 봉행
 - 9월 영천 장수 및 과일축제장에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 2013년
 - 4월 네팔 룸비니서 '평화의 불 재화'
 - 5월 인천각에서 '평화의 불 봉안' 및 정전60주년 한반도평화기원 대법회 봉행
 - 2014년
 - 4월 세월호 희생자 극락왕생 발원 기도
 - 9월 민족성지 백두산 순례
 - 2015년
 - 10월 서울 수락산 도안사에서 108차 순례 및 순례기도회 회향대법회

마하연여행사

예약문의 02)365-7747

www.mahay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오시는 길 : 서울 조계사 앞

출발 확정 상품

인도 11일	출발일: 2월 16일	요금문의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출발일: 10월 20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8일	출발일: 11월 28일	요금문의	(지장도량/관음도량) 구화산/보타가산 6일	출발일: 10월 31일, 11월 21일	요금문의
미얀마 6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출발일: 12월 5일, 12월 12일	요금문의	(미얀마)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이티오 7일	출발일: 12월 2일, 12월 30일

미얀마 - 중국 성지순례

향시출발

미얀마

선불 선량의 나라 미얀마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이티오 7일(3대성지 순례)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벤디야 7일
- 양곤/바간/헤호 5일

중국

-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문수도량] 오대산/북경 5일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향주 5일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향주 5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산둥 문화탐방 5일, 청도/곡부/태산 6일 - 웨리크루즈
- 태향산/천계산/오산(208M 중원대불) 5일
- 공중도시 면산 & 태항 대협곡 5일

인도/네팔/스리랑카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나란다-라즈기르-바이살라-쿠시나गर-룸비나-스라바스티-산카시아-아그라

인도/네팔 15일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볼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볼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스리랑카/인도/네팔 15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볼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미탈레-캔디-콜롬보-룸바-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파트나-바이살라-쿠시나गर-쉬라바스티-룸비나-카트만두-나기르

티베트/부탄

티베트 6일
성도-리싸-암드록추-간체-시가체

티베트핵심 하늘열차 8일
중경-리싸-장체-시가체-리싸-난주역-하늘열차

부탄/네팔 8일
카투만두-파로-팀푸-왕디포드랑-통사-푸니카-팀푸-파로-카투만두-나기르

동티베트 9일
성도-문천-마일링-통달(오명불학원)-백목(아침스)-간당-성도

마하연의 특별항

- 01 |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책정 (가치없는 상품가격)
- 02 |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 03 |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 04 | 호텔 - 행사일정 - 식사 (타사 비교 필수)

라오스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하롱베이/씨엠펙 6일

대만/홍콩

대만 5일
대만3대사찰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련

세계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서울열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문화탐방 9일
- 미동부 문화탐방 9일